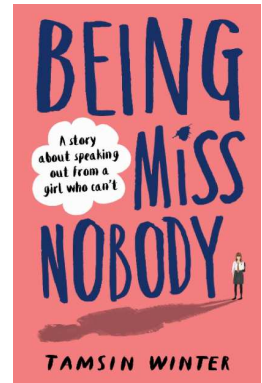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EING MISS NOBODY
가제 : 아무개 양의 블로그
저자 : Tamsin Winter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분량 : 4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는 열한 살 소녀가 찾아낸 특별한 해결책과 학교에서 벌어진 예기치 못한 혼란
- * 따돌림 문제, 양날의 검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유머와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려낸 이야기

로잘린이 ‘공식적으로’ 이상한 애로 분류된 건 2년 전, 아기 때부터 로잘린의 주치의였던 랭글리 박사의 진료실에서였다. 남동생이나 부모님 앞에서는 멀쩡히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입을 조개처럼 꼭 다물어버리는 로잘린이 심각하게 걱정된 부모님은 랭글리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결과는 이상한 애라는 진단이었다. 박사가 이름을 말해보라고 했지만, 로잘린은 왜 이름을 알면서 물어보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고 진찰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뚫어져라 자신을 쳐다보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로잘린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고 전문가의 소견에 따른 이상한 애가 되고 말았다.

사실 로잘린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게 된 사건은 그보다 수년 전인 다섯 살 때 벌어졌다.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간 것이 화근이었다. 이미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는데,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마술사까지 초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로잘린은 더욱 가기 싫었다. 하지만 엄마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참석했고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시끄럽게 자기 소개를 하며 등장한 마술사는 누구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조수가 되어 달라고 외쳤다. 아이들이 너도나도 손을 번쩍 들며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가 난 방 안에서 오직 한 사람, 로잘린만 손을 들지 않았고 이것이 마술사의 눈에 확 들어온 것이다. 조수로 선택됐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로잘린을 주변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서 겨우 앞으로 보냈고 완전히 굳어버린 로잘린은 조수 역할은커녕 이름이 뭐냐는 마술사의 질문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른들의 도움으로 겨우 부엌에 피신한 로잘린은 이상하다고 수군대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로잘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 답답한 증상은 학교를 다니면서 한층 더 심해져서 이

제 열한 살이 된 지금, 반 친구들은 물론 온 학교 선생님과 전교생이 다 아는 ‘병어리’, ‘멍청이’가 되었다.

그런 로잘린이 유일하게 모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남동생 셉이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늘 집에서 병마와 싸우는 안쓰러운 동생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짓궂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누나가 너무 안타까웠다. 컴퓨터 천재인 셉은 어느 날, 로잘린에게 말을 못하겠으면 블로그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고, 로잘린은 그 동안 당했던 일들을 그렇게나마 복수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하여 셉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아무개 양의 블로그’가 탄생한다.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로잘린은 아무개 양이 되어 학교에서 못된 아이들이 벌인 온갖 만행을 날날이 공개한다. 자신이 당했던 일뿐만 아니라 암전한 척 굴던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여럿에게 저지른 일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공개된다.

로잘린의 블로그는 곧 학교 아이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낸다. 모두가 아무개 양이 쓴 글이 사실임을 알고 있고, 부적절한 몇몇 아이들의 행태에 다 함께 분노한다. 제멋대로 남을 괴롭히던 아이들은 신상이 다 드러나 어딜 가든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로잘린의 처음 계획대로 잘 굴러가던 블로그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나약하고 강단은 없지만 마음만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챙기던 한 선생님을 로잘린이 블로그에서 신랄하게 비난한 바람에 선생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 무너져버리고, 엉뚱한 아이가 ‘아무개 양’으로 의심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혼내주려고 만든 블로그가 죄 없는 희생양을 낳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늘 로잘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동생 셉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로잘린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 왜 이 블로그를 시작했는지, 아무개 양의 정체는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만 하는 때가 다가왔다. 과연 로잘린은 이 엄청난 고백을 해낼 수 있을까?

수줍음 많은 소녀가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적응하고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유머와 감동을 모두 담아 그려낸 따뜻한 이야기다.

<저자 소개>

탬신 윈터(Tamsin Winter)는 대학에서 영문학과 글쓰기를 공부하고 광고회사에서 일하다가 현재까지 15년째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2015년에 ‘에미레이트 문학상(Emirates Festival of Literature writing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THE SECRET SCIENCE OF MAGIC

가제 : 마술에 숨겨진 과학

저자 : Melissa Keil

출판사: Hardie Grant Egmont

발행일: 2017년 4월 1일

분량 : 32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평범한 사람들 틈에 섞인 특별한 존재들의 고통과 사랑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

*** 천재 소녀와 마술에 푹 빠진 ‘이상한’ 아이들에게 일어난 마법 같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서 있어도 혼자 뚝 떨어져 투명한 막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낯선 느낌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찾아올 수 있고 일시적으로 찾아왔다가 지나갈 때가 많지만, 홀로 분리된 듯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소피아와 마술에 심취한 조슈아가 그렇다. 각자의 캡슐 속에서 손끝에 닿지 않는 세상을 바라만 보면서 괴로워하던 두 사람에게 마술처럼 찾아온 완벽한 타이밍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따뜻한 로맨스로 이어진다.

조슈아는 특별한 계기로 카드 마술에 빠졌다. 여러 마술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실력을 겨뤄보자고 대담한 제안을 던진 세계 최고의 마술사, 하우디니가 그 호기로운 도전에서 보기 좋게 한방 먹는 장면을 본 것이 시작이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카드 마술사 버논은 하우디니와의 대결에 당당히 나섰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카드 뭉치 중 한 장을 골라서 자신이 골라낸 카드 한 귀퉁이에 펜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다. 하우디니가 작은 글씨를 써 넣은 카드는 버논이 가지고 있던 카드 뭉치로 들어가고 버논은 한참을 섞은 후, 맨 위에 하우디니의 카드가 나오게 하는 놀라운 마술을 선보였다. 하우디니는 버논이 7번이나 같은 마술을 할 때까지 그 원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조슈아가 고작 열 살 때 비밀을 알아낸 ‘간단한’ 일을 가지고 세계적인 마술사라는 사람이 끔찍했던 것이다. 공부도, 운동도, 열일곱 살 또래 친구들처럼 어울려 다니며 재미있는 일을 찾아 다니는 것도 전부 조슈아와는 거리가 먼 얘기였다. 마술 외에는 아무 것도 흥미가 느껴지지 않았고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늘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카드 외에 조슈아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은 오직 한 명, 전교에서 천재라고 소문이 자자한 소피아뿐이었다. 벌써 몇 년째 조슈아는 소피아를 향한 마음을 마술의 비밀을 숨기듯 철저하게 감춘 채 바라보기만 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무려 5년 전, 속만 태우던 조슈아는 카드 마술처럼 사랑도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확신이 들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마다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다정하게 응시하는 수재, 소피아는 꼬마 시절부터 영재로 소문이 자자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소피아가 또래들은 물론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머리가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청소년기를 거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소피아는 이 남들 같지 않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천재라 일컬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홀로 고독하게 혹은 외면 받으며 철저히 고립되어 살거나 활발히 활동할 경우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으며 좋게는 ‘괴짜’, 나쁘게는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이미 열일곱 살에 그 비정상적인 인생 궤도가 어느 정도 확립됐다는 생각은 소피아를 미치게 만들었다. 학교에서 친한 친구라곤 엘시 단 한 명밖에 없고, 엘시는 이런 불안감에 수시로 공황 상태에 빠져지는 소피아를 돕기 위해 열심히 애쓰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이상 고민되는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진 엘시는 점점 소피아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소피아는 더욱 큰 불안감에 휩싸인다. 과학, 논리, 수학이라면 얼마든지 언제까지나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성인의 문턱에 다가선 조슈아와 소피아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붕 떠버린 기분을 느낀다. 조슈아는 한없이 미루고 덮어 놓기만 했던 소피아를 향한 마음을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됐음을 직감한다. 불과 몇 달 후면 학교에서 마음 놓고 볼 수 없고, 그러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조슈아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몸의 일부분처럼 다룰 수 있는 카드와 마술, 타이밍의 힘을 믿는 것이다. 객관적 판단과 논리로 뚫뚫 뭉쳐진 소피아에게 어느 날부터 마술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신비한 일들은 공부 외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소피아에게 손을 내민다.

평범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우정과 사랑을 유쾌하게 담아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멜리사 케일(Melissa Keil)은 미국, 런던, 중동 지역을 거쳐 현재 호주 멜버른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2013년에 발표한 YA 데뷔소설 『Life in Outer Space』로 앰퍼샌드 상(Ampersand Prize)과 하디 그랜트 에그몬(Hardie Grant Egmont) 신인작가상을 수상했다. 2014년 두 번째 소설 『The Incredible Adventures of Cinnamon Girl』을 발표했다.